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종류

수필·공트·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사진·만화 등 제한 없음

•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적정 분량)

• 원고마감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낼 곳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E-mail gysosic@korea.kr

•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7 월 호 독 자 후 기



홍세민(고양시 덕양구)

일산호수공원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인 예쁜 플라워 북카페가 생겼다는 점이 제일 유익했어요. 여름에 시원하고 예쁜 플라워 북카페로 책 읽으러 가야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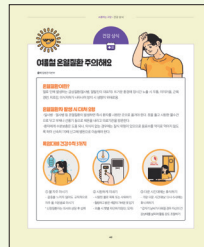
권옥자(고양시 일산동구)

고양 생태공원에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다니 도심 속에 귀한 손님이 오신 듯 반가워합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다녀올까 합니다.



이주현(고양시 일산서구)

정발산동의 아름다운 반란! 동네 소식을 읽고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목(경기도 김포시)

몇 년 전 온열질환으로 고생을 해서 건강상식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를 지키는 습관을 길러 건강한 여름을 보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7월호 문장의 신 당첨자

< 7월의 단어 >

☀️ 여름, 🦋 건강, 🌬️ 바람, 🙌 덕분에

조연호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더운데 다행히 근래 시원한 바람이 자주 불어 덜 더운 것 같아요. 집에만 있기보다 건강을 생각해 주변에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시원한 바람 덕분에 산책도 즐거울 거예요.

선혜인

무더운 여름! 땀별과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하니 답답하지만 고양소식지 덕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집에서 편안하게 고양시의 소식을 접할 수 있으니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

계절을 돌아봄

글 윤지현(고양시 일산서구)

“포근한 날씨에 갑작스러운 함박눈이 펄펄 내려 지붕과 마당 위에 쌓이는 것을 바라보자니 마음도 하얗고 포근해져 비질할 마음이 사라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 좀 더 내리는 것을 두고 보자고 마음먹었는데 안방에서 소리치며 어서 마당 쓸지 않고 뭐 하느냐는 아버지의 채근에 어쩔 수 없이 빗자루를 들고 어슬렁 마당으로 나간다. 내리는 눈보다 속도를 덜 내서 비질을 한다. 머리며 어깨에 닿아 떨어지는 눈이 참 소담스럽다. 내 눈[目]과 눈[雪]이 마주치는 그 찰나 나는 그 눈[雪]을 입에 대고 맛을 느껴보았다. 사실은 느낄 사이 없이 따뜻한 나의 입안에서 바로 녹았지만 이 계절이 주는 확실한 증표는 눈[雪]이 맞다. 좀 더 이 여유를 누리고 싶었는데 또 호통이 들려온다. 어서 어서 눈을 치우라는 쉬고 갈라진 목소리. 이제 본격적으로 비질을 한다. 눈바닥 위에 비가 쓰고 간 무수히 많은 선을 따라 흙이 드러난다. 눈은 어느 정도 내린 후에 잠시 쉬고 있다. 열심히 비질을 한 덕분에 마당은 밟고 흥한 것을 깨끗하게 감추고 있는 듯 정결해졌다...”

눈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며 작년 겨울 쓴 글이 여기까지다. 더 이상 눈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할 만큼 세상이 집중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벌써 겨울을 지나 봄을 건너뛰고 성큼 여름이 몰려온다. 이 지구라는 행성은 봄도 오지 않은 느낌인데 초록은 이미 연두를 지나 진한 푸름으로 변하고 대기는 더위를 뿜아낼 준비를 한다. 하루하루 전해오는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눈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고 있다. 어서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많은 사람의 소망도 동시에 느껴진다.

세상이 어지럽고 나 또한 이 어려운 시류에 마지못해 동참하여 봄 없는 여름을 맞았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한동안 우울한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를 털고 열심히 계절을 받아들이고 살아내야겠다. 계절 감각이 돌아오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누군가 그토록 살고 싶던 내일인 오늘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